18세기 설탕산업, 노예무역 그리고 영국 자본주의

곽 문환

I. 머리말

신대륙이 발견1)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흑인 노예를 상품화하여 대규모의 무역을 시작한 것은 신대륙 발견 이후의 일이다. 16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노예 무역은 17세기에 이르러 대규모의 무역으로 발전하였고, 18세기에 점정기를 맞는다. 그전부터 존재했던 흑인 노예들이 17, 18세기 세계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로 발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탕수수가 수출 상품으로 제배된 것은 지중해 지역에서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이다. 그러다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은 대서양의 한 섬에 사탕수수를 도입해서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설탕은 유럽 인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설탕에 대한 유럽인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설탕산업이 지중해 지역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부터이다.2)

1) “신대륙”이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아메리카대륙에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극명한 서구 중심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설탕산업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중심지를 옮기게 된다. 16세기 말에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설탕생산이 시작되었고, 뉴욕 17세기에는 카리브해의 섬들이 설탕산업의 중심지가 된다. 결국 설탕생산 중심지는 서쪽으로 계속 옮겨간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중해 설탕산업’과 ‘대서양 설탕산업’에서도 흑인 노예 노동력이 사용되었지만, 흑인 노예노동이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카리브해 설탕산업시기’이다. 3) 카리브해 설탕산업 시기가 유럽을 단맛으로 매료시킨 ‘진정한’ 설탕산업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서유럽 자본주의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한 것도 카리브해 설탕산업시기이다. 카리브해 설탕산업은 이전의 설탕산업과 크게 다르다. 설탕산업이 플랜테이션화됨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규모 노동력 공급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카리브해 설탕산업에 처음부터 흑인 노예 노동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이 카리브 지역에 플랜테이션을 경영했을 초기에는 ‘혼합된 노동형태’4)였다. 이 것이 첫 번째 노동 형태였다. 그 다음 단계로 1650년에서 1850년까지는 거의 흑인 노예노동에 의존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18세기는 흑인 노예노동을 이용한 영국의 설탕산업이 가장 크게 확장되던 시기이다. 세 번째로, 19세기는 노예해방이 결정되자 수입된 노동력으로 노예해방의 여파를 줄여나갔지만, 그 이후로 카리브해지역의 노동형태는 거의 예의 없이 ‘자유노동’이었다. 18세기에 노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흑인 노예무역

---


3) 펠자는 근대 설탕산업을 세 가지 시기로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아랍이 설탕산업을 주도했던 시기로서 ‘지중해 설탕산업시대’이다. 아랍이 지중해로 진출하면서 설탕생산을 지배해 도입했다. 두 번째 시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설탕산업을 주도했던 시기로서 ‘대서양 설탕산업시대’이다. 대서양의 여러 섬에서 설탕산업을 육성했다. 세 번째 시기는 ‘카리브해 설탕산업시대’이다. 이 시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서인도제도에 대규모의 설탕 플랜테이션을 건설했지만, 곧 설탕산업의 주도권은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점하는 시기이다.

4) 백인 계약 노예자,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오) 노동자, 흑인 노예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본 논문 3장을 보라.